

20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윤리

김 미 현*

차 례

1. 서론: 정의에서 돌봄으로, 돌봄에서 자기 돌봄으로
2. 공존의 허구성과 의존의 정당성
3. 희생의 자본화와 저항으로서의 자기 서사
4. 평등의 불평등성, 이웃과의 교차성
5. 결론: '다른 목소리'로서의 자기 돌봄 윤리

<국문초록>

21세기 들어 윤리학의 초점은 주체에서 타자로 이동했고, 이런 이동을 심층적 차원에서 담론화할 때 부각되는 것이 돌봄 윤리이다. 돌봄 윤리 자체가 '정의의 타자'로서 동일성이나 독립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주체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돌봄 윤리를 여성주의적 윤리와 연관시키는 논의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공감·헌신·협력 등의 여성적 가치가 위협받는 '돌봄 위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여성주의적 돌봄 윤리는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논쟁적 개념이기도 하다. 돌봄 윤리 자체가 여성 종속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여성을 억압했던 과거로 퇴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다. 이런 돌봄 윤리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자기 돌봄'의 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자기 돌봄 윤리는 돌봄 윤리 자체가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상실’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선택’ 행위임을 보여주면서도 돌봄 제공자 또한 돌봄을 받아야 할 돌봄 의존자임을 간과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는 긍정적이고도 생산적인 윤리 개념이다.

2010년대 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소설가들의 주목 받는 장편소설인 김숨의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 구병모의 『네 이웃의 식탁』은 이런 여성주의적인 자기 돌봄 윤리가 처한 곤궁함과 정당성을 동시에 서사화한다. 김숨의 소설은 공존이라는 허구의 억압성을 돌봄 윤리의 기본 전제인 의존의 정당성으로 내파한다.(2장) 김혜진의 소설은 희생이라는 돌봄 가치의 자본화를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저항으로 자기 서사를 통한 민감한 반응성을 강조한다.(3장) 구병모의 소설은 평등을 강조하는 이웃 공동체의 불평등성을 통해 자기 돌봄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균열과 충돌을 인정하는 교차성의 개념에 주목한다.(4장)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소설들의 자기 돌봄 윤리는 첫째로는 여성만이 아닌 모든 인간을 돌봄 윤리에 의존해야 할 보편적 타자로 확대시켰다는 것, 둘째로는 여성주의적 돌봄 윤리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차별과 차이를 구체화시켰다는 것, 셋째로는 자기 돌봄 윤리가 공존·분배·평등 중심의 정의 윤리나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일반적 돌봄 윤리와는 모두 차이나는 새로운 여성 윤리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핵심어 : 김숨, 김혜진, 구병모, 돌봄, 자기 돌봄, 여성 윤리.

1. 서론: 정의에서 돌봄으로, 돌봄에서 자기 돌봄으로

2010년대 들어 윤리학의 초점은 주체에서 타자로 이동했다. 근대적 발전 논리를 이루었던 주체의 자율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타자의 소외나 배제를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체에서 타자로의 초점 이동을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담론화할 때 부각되는 것이 바로 ‘돌봄’¹⁾ 윤리이다. 기존의 주체 중심의 윤리는 ‘정의’에 토대를 둔다. ‘공정한 몫의 분배’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독립성과 권리를 지향하는 것이 정의 윤리이다. 반면 이런 ‘정의의 타자’로서의 돌봄 윤리는 정의가 타자화시킨 “사람들 사이의 비대칭적 의무”²⁾에 주목하면서 친밀성과 책임의 윤리를 중시한다. 동일성이나 독립성을 중시하는 근대의 나르시시즘적 정의 윤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동일성과 취약성을 인정하는 돌봄 윤리가 급부상한 것이다. “인류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배우며, 건강하게 타인과 사회에서 함께 잘 살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³⁾ 힘이 바로 돌봄 윤리의 개념이다. 또한 “사람은 일생을 통해 돌봄의 필요와 능력이 달라지기는 해도 언제나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⁴⁾라는 인식이 돌봄 윤리의 기본 전제에 해당한다.

이런 돌봄 윤리를 저출산이나 공동 육아, 노인 복지, 장애인 보호 문제 등과 연결시켜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주의적 윤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⁵⁾ 돌봄 문제를 심리학 적 발달 차원에서 접근하면서도 여성 심리의 윤리적 측면과 연결시킴으로써 최초로 젠더화한 이론가가 바로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이다. 그녀는 『다른 목소리로: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⁶⁾에서 기존의 발달 이론이 남아(男兒)의 정의 윤리 중심이었음을 비판한다. 이럴 경우 여아

1) ‘돌봄’이라는 용어는 영어 ‘care’의 번역어로서 ‘보살핌’이나 ‘배려’ 등으로도 번역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자주 쓰이면서 구체적인 윤리 행위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악셀 호네트, 『정의의 타자』, 문성훈 외 역, 나남, 2009, 171면.

3) 버지니아 헬드, 『돌봄: 돌봄 윤리』, 김희강·나상원 역, 박영사, 2017, 15면.

4) 조안 C. 트론토,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나상원 역, 아포리아, 2014, 87면.

5) 송인화,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과 윤리성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1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4.

6)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역, 동녘, 1997.

(女兒)의 돌봄 윤리가 정의 윤리보다 열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심리 이론들이 답습했던 이런 우열관계를 비판하면서 여성주의적인 돌봄 윤리를 재구성한 것이 바로 길리건의 이론이다. 여성주의의 관계 지향적 자아가 돌봄 윤리로 연결되는 것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전유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이런 여성주의적 돌봄 윤리가 더욱 부각되는 것은 공감·헌신·협력 등의 여성적 가치가 위협받는 ‘돌봄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엄마 품 같은 돌봄(mothering)”⁷⁾의 행위를 보편적 윤리로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공정함이나 권리, 규율보다는 “공감이나 연민 등의 정서적 참여를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돌봄의 윤리”⁸⁾를 회복시키자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여성주의적 돌봄 윤리는 페미니즘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논쟁적 개념이기도 하다.⁹⁾ 정의 윤리를 과소평가하면서도 돌봄 윤리는 과대평가함으로써 돌봄 윤리를 여성 종속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가부장적 억압의 상태로 퇴행시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21세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로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자체가 “빈곤, 폭력, 배제, 학대에 취약한 조건으로 작동”¹⁰⁾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때문에 돌봄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과, 돌봄 윤리의 여성화에 대한 현실적 한계에 대한 고려 없이는 돌봄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돌봄 윤리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자기 돌봄’의 윤리이다. 돌봄 윤리 자체가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상실’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선택’에 토대를 둔다는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돌봄 윤리에 관한 논의들이 돌봄 제공

7) 에바 F. 키테이,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나상원 역, 박영사, 2016, 15면.

8) 공병혜,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155면.

9) 돌봄 윤리에 제기되는 페미니즘 진영 내부에서의 비판은 다음을 참조했다.

로즈마리 톱,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역, 한신문화사, 1995, 261-265면.

이수연·한일조·변창진, 『삶과 배려』, 학지사, 2017, 106-109면.

10) 에바 F. 키테이, 앞의 책, 15면.

자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돌봄 제공자 또한 돌봄을 받아야 할 돌봄 의존자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반성이 반영된 개념이기도 하다. 돌봄 행위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돌봄 제공자-돌봄 의존자’의 상호 작용 하에서 돌봄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인정할 때만이, 그리고 그런 돌봄의 한계를 자기 돌봄의 행위로 극복할 때만이 진정한 돌봄 윤리가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자기 돌봄의 윤리를 통해 돌봄 윤리에서조차 제외되었던 ‘타자의 타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자기 돌봄은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돌봄으로 고통이나 상처를 받는 자가 의외로 돌봄 제공자인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과 상처에 대한 윤리적 자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타자적 주체 또한 여성이라는 것, 이를 위해 돌봄 제공자 또한 돌봄 의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윤리이다. “자신이 의무를 느껴야 할 대상에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서, 이기심과 책임감의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¹¹⁾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자기 돌봄의 윤리를 통해 2010년대에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여성 윤리 자체가 여성들 스스로를 유기하거나 착취하는 부정적 윤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긍정적 윤리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 역시 돌봄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면, 돌봄 윤리가 지니는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소설가들 중 본 연구에서 살펴 볼 김숨, 김혜진, 구병모의 장편소설들은 모두 이런 자기 돌봄의 윤리를 본격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이 여성소설가들은 각각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딸에 대하여』, 『네 이웃의 식탁』에서 자기 돌봄의 윤리가 처한 현실 속 곤궁함과 미래의 확장성을 동시에 문제 삼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소설들 속 자기 돌봄의 윤리가 “여성의 객체

11) 캐롤 길리건, 앞의 책, 184면.

화와 이상화, 폄하 등을 거부”¹²⁾하는 21세기적인 새로운 여성 윤리로 자리매김 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돌봄 윤리가 지니는 관념성과 억압성을 비판하면서 이와 공모하는 가부장제나 자본주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모성과 육아 문제 중심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의 윤리나 돌봄 윤리 두 방향과는 모두 다른 측면에서 자기 돌봄 윤리가 어떻게 생산적인 가치를 확대 심화시키는지, 그 과정 속에서 2010년대 한국여성소설이 새로운 여성 윤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2. 공존의 허구성과 의존의 정당성

돌봄 윤리의 기본 전제는 인간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즉 “비의존적이고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인간은 단지 허구이며 가식”¹³⁾이기에 돌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는 인식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돌봄 윤리이다. “취약성에 반응하는 인간적인 실천”¹⁴⁾이 돌봄 윤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돌봄 제공자는 돌봄 의존자를 돌보는 데에 집중하기에 정작 자기 자신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돌봄 제공자에게도 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예외 없이 돌봄 윤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누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그리고 더 많이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김숨의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¹⁵⁾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

12) 캐를 길리건, 『담대한 목소리』, 김문주 역, 생각정원, 2018, 182면.

이 책은 『다른 목소리로』의 후속편에 해당하는 저서로, 저자의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여성 중심적 시각과 정치적인 행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원제인 ‘*Joining the Resistance*(2011)’(저항에 동참하기)를 ‘담대한 목소리’로 번역한 것은 그런 저자의 변화를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13) 에바 F. 키테이, 앞의 책, 6면.

14) 허태금, 「관계적 돌봄의 철학」, 『사회와 철학』 제35집, 사회와철학연구회, 2018.4, 67면.

이의 공생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 제도나 가사 노동하에서는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지를 돌봄 윤리의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다. 때문에 소설 제목에서의 '여인들'은 집안 살림이나 육아에서 서로의 적처럼 대립하고 있지만, 숨어 있는 진짜 '적'은 가부장제나 자본주의와 같은 여성 억압적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진화'라는 단어를 통해 그런 여성 억압적 제도가 얼마나 교묘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여성들 사이의 공생 관계를 왜곡 혹은 분열시켰는지 아이러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또 다른 여성의 하급 노동으로 하청을 주는 가부장제나 자본주의 자체가 '진화하는 적'이라는 것이다.¹⁵⁾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무화시키는 권력의 작동 방식이 가장 강력한 지배 전략임을 암시해주는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또한 “스스로 ‘화석인류’임을 입증하고자 할 때, 어머니의 ‘진화’는 인류의 역사에서 있지도, 있을 수도 없었음”¹⁷⁾을 비판하려는 주제 의식과도 연결된다.

이 소설에서 출산 후 복직해야 하는 자신의 요청으로 5년 전부터 아들집에 들어와 “입주 보모”(41면)처럼 일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의외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돌봄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이 적대감이나 경쟁심이라는 현실을 통해 돌봄 윤리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며느리에게도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더욱 문제적이다. 15년 동안 흡쇼핑

15) 김숨,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현대문학, 2013. 앞으로 이 소설의 직접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하여 면수를 제시한다.

16) 낸시 프레이저는 가족 내에서 무보수 노동으로 잉여가치만을 생산했던 여성의 돌봄 노동이 21세기의 금융 자본주의 하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양산하면서 더욱더 하위에 있는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다른 임금노동 여성이 착취하게 되는 ‘돌봄 사슬’이 생겨난다고 비판한다.

낸시 프레이저, 「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비평』 2017년 봄호, 349면, 참조.

17) 소영현, 「모욕의 공동체, 고귀한 삶의 불가능성」,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해설), 현대문학사, 2013, 311면.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일했던 직장에서 며느리 또한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저급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감정 노동에 시달렸던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인 여자처럼 쓸모가 다한 잉여의 존재로 전락한 불안하고 끔찍한 기분”(59면)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해나 연민보다는 자신과 그녀를 본래는 동일한 종(種)이었지만 진화하면서 분화된 “다른 종”(122면)으로 간주하고 싶어 한다. “공생이라는 환상”(131면)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자신이 “다른 한 쪽 없이는 나머지 한쪽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할 만큼 결합해, 하나의 식물처럼 보인다는 이중 생물”(140면), 즉 “둘이자 하나인 결합생물”(141면)로 간주되기를 바란다. ‘다른 종’이 아닌 ‘같은 종’으로 간주됨으로써만 자신의 돌봄 윤리가 지닌 인간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 따로 살자는 말을 그녀는 그렇게 예들려 여자에게 하고 있었다. 공생의 의미가 없어진 마당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함께 살 순 없지 않은가. 전혀 다른 종(種)일 경우 쌍방은 아니어도 어느 한쪽은 분명히 도움 받는 부분이 있어야 공생이 가능한 게 자연의 이치 아닌가. 여자가 자신과 다른 종이라는 그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살다가는 여자와 그녀 자신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이중생물 신세가 될 것만 같았다. (258면)

예문에서처럼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다른 종”이 아닌 “이중생물”이 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자신이 실직하자마자 “따로 살자”는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쌍방은 아니어도 어느 한쪽은 분명히 도움 받는 부분이 있어야 공생이 가능한 게 자연의 이치”라는 자기합리화를 감행한다. 실직한 며느리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돌봄 노동은 잉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사실 공생이 아니라 기생이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공생의 허구성을 공생에 대한 왜곡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왜곡이 오히려 공생의 허구성을 증폭 시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모성적 돌봄 노동을 생명 중시나 모성애라는 절대 가치로 무조건 신성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근대적인 맹목적 모성으로 쉽게 폄하할 수만도 없다. 이런 양 극단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돌봄 윤리를 바라 볼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돌봄 제공자로서의 시어머니 또한 돌봄을 받아야 할 의존자라는 것, 돌봄 의존자로서의 시어머니에 대한 돌봄의 정당성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생의 윤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적들의 교묘한 지배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이럴 때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은 '여인들'이지만, 그것이 그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것을 작가는 암암리에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어머니의 존재가 소설의 결말에서 인류 최초의 화석 여자인 '루시'와 연결되는 장면 또한 주목해야 한다. 루시와 시어머니의 연관성은 두 가지 점에서 확인된다. 시어머니의 상황과 위치가 당대의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 문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어 온 인류사 전체의 문제라는 것과, 이때의 모성은 생물학적인 모성(mother)이 아니라 모성의 기능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모성적 사유(mothering)"¹⁸⁾의 문제라는 것이다. 돌봄 윤리에 대한 왜곡으로 야기되는 여성혐오와 자기혐오의 위험성과 그 극복가능성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관(棺)처럼 길고 네모나게 판 구덩이 속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웬 여자가……. 포클레인 삼날 자국이 선명한 구덩이 속에 웬 여자가 들어가 누워 있나 했더니, 여자였다. 두 손을 가슴계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인 여자가 틀림없었다. 백발의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져 여자의 얼굴과 목, 가슴을 실뿌리처럼 뒤덮고 있었다. 그러곤 여자의 두 손은 땅을 뚫고 올라 온 알뿌리 같았다. (297-298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여성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350만 년 전 인류 최초의 화석 인류인 루시를 떠올리는 이유 또한 그녀들에게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용된 예문의 상

18) 사라 러덕, 『모성적 사유』, 이해정 역, 철학과현실사, 2002, 18면.

정성은 복합적이고도 중층적이다. 소설의 결말인 이 장면에서 시어머니가 집 근처 신축 공사장의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눕는 행위는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퇴화’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재생’의 퍼포먼스에 더 가깝다. “체제의 안정을 교란하고 시스템을 훼손하는 전복적인 모성”¹⁹⁾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성적 돌봄 행위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회의 진화에 항거하면서 화석으로 되돌아가는 역진화를 통해 자기 돌봄의 윤리를 인정받으려는 행위인 것이다. 예문에서처럼 이미 역사에서 이미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루시의 화석이 미래를 위한 “알뿌리”로서 작용한다면 긍정적인 자기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여성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기 돌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기 해체를 감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의존의 정당성이 모성적 사유를 통해 자기 돌봄의 윤리로 치환되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가족 단위에서 일어나는 어머니들의 돌봄 행위가 지니는 비대칭성과 무조건성을 통해 의존의 정당성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어머니됨을 박탈하려고 할 때 오히려 돌봄의 여성 윤리는 훼손되고 왜곡되며 이데올로기화될 수 있음을 강변하는 것이다.²⁰⁾ 모성적 돌봄 행위 자체가 여성의 자아정체성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즉 모성적 윤리 자체가 어머니들에게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자기 돌봄 행위일 수 있다. 때문에 오히려 모성의 긍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모성성이 지닌 자기 돌봄 윤리의 긍정성을 촉진시켜 준다. 캐롤 길리건이 큐피드와 프쉬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이름이 ‘조이(joy)’ 즉 ‘기쁨’이고, “기쁨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²¹⁾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성이 되

19) 김경연, 「노년여성의 귀환과 탈가부장제의 정후들」, 『어문논집』 제82집, 민족어문학회, 2018.4, 165면.

20) 키테이도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둘리아(dulia)’라는 개념을 통해, 산모가 아이를 돌볼 때 아이를 직접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산모를 돌봄으로써 산모가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에바 F. 키테이, 앞의 책, 9면 참조.

21) 캐롤 길리건, 『기쁨의 탄생』, 박상은 역, 빗살무늬, 2004, 209면.

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모성이 될 자유 또한 있다는 것, 거기서 모성의 자기 돌봄의 윤리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모성의 진화를 비주체적이라고 억압하는 것 자체가 적들의 교묘한 방어 논리일 수도 있다는 것 등이 바로 이 소설이 전하는 자기 돌봄의 윤리이다. 모든 모성이 아니라 부정적 모성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3. 희생의 자본화와 저항으로서의 자기 서사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²²⁾는 동성애자를 딸로 둔 어머니가 겪는 갈등과 화해가 중심인 퀴어 소설로 읽을 수도 있고, “혈연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성 소수자 커플, 그리고 무연고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가족상”²³⁾을 제시하는 가족소설, 혹은 늙음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노년소설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희생 중심의 돌봄 행위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희생당하는 어머니로서의 ‘나’가 겪고 있는 “엄마가 잃게 될 많은 것들과 엄마가 봉착할 사회적 폭력들”²⁴⁾을 중심으로 “실은 어머니에 대하여”²⁵⁾ 쓰고 있는 돌봄 윤리의 소설로 볼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 보호사(간병인)인 어머니의 담당 환자인 ‘젠’의 서사가 소설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면서 중요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더욱 돌봄 윤리의 측면에서 이 소설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성애라는 섹슈얼리티의 문제나, 약자로서의 노인이 겪는 소외의 문제 또한 ‘나’를 중심으로 한 돌봄 윤리 중심의 유사가족공동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21세기적인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돌봄 노동의

22) 김혜진, 『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 앞으로 이 소설의 직접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하여 면수를 제시한다.

23) 배상미, 「가족과 여성, 그리고 계급서사」, 『문학동네』 2018년 가을호, 495면.

24) 박훈하, 「헬조선을 기록하는 법」, 『오늘의 문예비평』 2018년 봄호, 278면.

25) 김신현경, 「실은, 어머니에 대하여」, 『딸에 대하여』 (해설), 민음사, 2017, 201면.

외주화를 통해 야기되는 경제적 거래가 돌봄의 가치마저 화폐로 환산시키고 있음을 문제 삼는다. 가족 중심으로 행해졌던 모성의 희생이 중장년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으로 자본화할 때의 경제적 소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 소설에서 가장 분명한 돌봄 의존자인 ‘젠’의 경우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이주민이나 입양아들을 아무런 대가없이 돌보아 온 존경받는 인권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린 채 요양병원에서 담당 간병인인 ‘나’의 돌봄에 의존하며 초라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었는가. 돌봄 윤리에서 근간을 이루는 희생의 가치가 자본화되었기 때문이다. 돌봄은 손해나 양보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희생의 윤리이다. 때문에 독립이나 자유, 권리 등이 중심이 되는 분배의 정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 그런데 21세기적인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런 희생의 윤리조차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번 취재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일까. 그래서 아무런 후원도 들어오지 않은 걸까. 기억을 잃은 젠이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팔아먹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걸까. 그래서 돈이 안된다고 여기는 걸까”(56-57면)라는 ‘젠’의 상황 또한 바로 희생이라는 정신적 가치의 자본화를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다.

심지어 ‘나’가 딸과 딸의 동성에 파트너인 ‘그린’과의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그들이 내는 월세 때문이다. 특히 ‘나’는 시간강사라는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딸의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는 ‘그린’에 대한 부채감 때문에 그녀들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을 수 없다. “입이 벌어진 만한 액수를 들이대며 그만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단순히 돈으로 셈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돈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64-65면)는 ‘나’의 심경 고백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세, 생활비, 권리. 돈과 맞바꾼 나의 권위, 부모로서의 자격, 심장을 떨리게 하는 수치심과 모멸감”(47면)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적나라한 ‘나’의 현실이다.

돈 때문이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안다. 내가 이 애들에게 월세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과 식료품 명목으로 웃돈을 더 받지 않았다면, 딸애에게 전셋집을 얻어 주는 조건으로 그 애와 헤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면, 딸애가 빌렸던 돈을 당장 내주고 그 애에게 나가 달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고 엄한 얼굴로 충고와 조언을 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딸애를 세상에 데려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자격이 유지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그것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나는 이제 그럴 능력도 기운도 없다. (64면)

예문에서도 드러나듯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양육마저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시대일 때는 모든 돌봄 윤리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소설로 대표되는 21세기형 쿼터 서사가 “성 소수자의 시민적 권리라기보다는 경제 동물의 형상을 경유하지 않고는 보통사람들을 상상하지 못하게 된 사태”²⁶⁾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타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딸애를 세상에 데려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자격이 유지되던 시절은 끝났다”는 예문에서의 ‘나’의 말은 생물학적 모성이 지닌 권리의 종언이자, 돌봄 제공자로서 지냈던 자부심의 추락을 의미한다. 노년 세대의 소외가 경제적 약자로서의 가난과 분리되지 않는 현실을 ‘나’ 스스로 직시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나’는 동성애 또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로 인해 구성될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돌봄의 형태를 제공하지 못할 때 야기되는 경제적 곤란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희생 중심의 돌봄 행위가 지니는 경제적 불평등성이나 억압성이 돌봄 담당자인 ‘나’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 2010년대 여성소설이 지닌 여성 윤리의 특수성이 있다. 돌봄 윤리의 경제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자기 서사’의 적극적 양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이 희생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소외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 자

26) 위의 글, 210면.

신의 목소리로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초기에는 타인 혹은 사회가 제시해준 선(善)의 기준에 따라 ‘젠’의 희생이나 더 나아가 딸의 동성애까지 평가했다. 그러다가 점점 스스로의 양심이나 경험에 의거한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돌봄 윤리를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자기 서사에 주목할 때에야 비로소 이 소설이 왜 딸이 아닌 어머니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다. 이때의 자기 서사는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그대로 타인과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²⁷⁾이다. 무엇보다도 “해야하는 말 대신 하고싶은 말을 하라”²⁸⁾라는 슬로건 아래 자신의 돌봄 행위를 침묵에서 발화의 층위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돌봄 윤리와 자기 서사가 만나게 된다. 즉 이 소설에서는 자기 돌봄을 위해 자기 서사에 몰두한다. 강요가 아닌 선택, 정답이 아닌 질문의 차원에서 돌봄 윤리를 문제 삼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은 저래도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생각을 좀 해 봐. 처음 여기로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잘 보살펴 달라는 인사를 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는 자기한테도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어. 세상에. 그런데도 이제 와서 쓰레기통에 처넣듯이 보내 버리겠다니. 우리라고 뭐 다를 거 같아? 우린 영원히 저런 침대에 안 누워도 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리라고.

그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젠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니라 딸애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나의 일이다. 이런 말이 내 안의 어딘가에 있었다는 게 놀랍다. 그런 말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침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이 되어 나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130-131면)

27) 김은희, 「캐롤 길리건: 정의 윤리를 넘어 돌봄 윤리로」,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편,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6, 132면.

28) 캐롤 길리건, 『담대한 목소리』, 134면.

처음에 ‘나’는 ‘젠’에 관한 부당한 대우나 동성애자로서의 딸이 처한 불평등에 대해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예문에서처럼 ‘나-젠-딸’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자 “세상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처럼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변화를 ‘젠’에 대한 요양병원의 부당 대우에 눈 감고 있는 간병인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때문에 “우리라고 뭐 다를 것 같아? 우린 영원히 저런 침대에 안 누워도 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정신을 좀 차리라고”라는 항변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각오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말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침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이 되어 나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런 자기 서사의 과정을 통해 ‘나’는 “파견 업체에 종속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젠의 돌봄 가족의 주체자임을 선포”²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의 결말에서 ‘나’는 시설이 더 열악한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젠’이 강제 이송되었을 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면서 그녀의 임종을 존엄하게 치러준다. 이를 통해 가격이 아닌 가치로, 거래가 아닌 선물로 ‘젠’의 희생을 대접해줌으로써 희생의 자본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서사가 지닌 ‘반응성(responsiveness)’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반응성은 ‘상호성(reciprocity)’과는 차이가 나는 개념이다. 앞에서 살펴 본 정의 윤리가 상호성에 토대를 둔다면, 돌봄 윤리는 반응성과 더 긴밀하게 연관된다. 즉 상호성의 윤리는 주체와 타자가 유사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동일성의 측면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기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윤리를 주로 구성한다. 반면 반응성은 주체와는 다른 타자를 타자 그 자체로 인정하는 비동일성의 측면에서 타자의 입장에 반응하기에 관계적이고 유동적인 윤리를 주로 구성한다.³⁰⁾ 때문에 반응성

29) 정은경, 「2010년대 여성담론과 그 적들: ‘돌봄’의 횡단과 아줌마 페미니즘을 위하여」,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5, 118면.

30) ‘상호성’과 차이나는 ‘반응성’의 개념은 트론토의 논의를 참조로 했다.

조안 C. 트론토, 앞의 책, 192-200면.

을 중심으로 할 때 ‘타자의 타자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자기 서사의 영역 또한 확대될 수 있다. 『딸에 대하여』에서 인물들 간의 서로 어긋나는 논쟁이나 갈등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도 이런 반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의미해진다. 이를 통해 ‘나’와 같은 어머니 세대 자체가 희생의 억압에 경제적 조건이 중요한 요인임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반응성에 중심을 둔 자기 서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이 제기하는 2010년대 여성 윤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나’의 자기 서사가 지닌 반응성은 기존의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서는, 그리고 ‘너’와의 관계성을 제외하고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거나 빚을 갚는다는 의미에서의 ‘계산하다’ 혹은 ‘치르다’의 의미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³¹⁾ 다시 이 소설을 “엄마가 ‘딸에 대하여’가 아니라 엄마가 ‘자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또 반문한 고뇌의 기록”³²⁾으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자신의 희생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기’의 서사이지만, 그러한 자신이 불완전성과 불투명성을 지닌 취약한 존재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돌봄’ 의존자임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서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윤리적 저항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의 돌봄에 대하여’로 제목의 의미를 전유할 수도 있는 소설이다.

4. 평등의 불평등성, 이웃과의 교차성

31) 이현재, 「인간의 자기한계 인식과 여성주의적 인정의 윤리: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적 폭력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7, 128면.

32) 백지은, 「자기에 대하여」, 『문학과사회』 2017년 겨울호, 386면.

혈연 가족(2장)이나 유사 가족(3장)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가장 대표적인 돌봄의 주체는 이웃이다. 구병모의 『네 이웃의 식탁』³³⁾은 이런 이웃이 주체가 된 공동체 중심의 돌봄 윤리를 공동 육아의 문제로 풀어내고 있다. 국가에서 최소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한 “실험공동주택”(9면)이 소설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는 21세기 들어 중요한 쟁점이 된 육아의 공공성 문제를 “공동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강조”(46면)되는 이곳에 먼저 입주하게 된 네 가족을 통해 서사화하고 있다. 이웃 사이의 공동 육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돌봄 윤리가 “윤리적 생활을 위한 길 안내라기보다 그 자체의 이론화의 장애물”³⁴⁾로서 더 많은 기능을 하는 현실을 통해 돌봄 윤리가 평등한 협력을 추상적으로 강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 공동 육아에서의 평등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평등의 원칙을 따른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돌봄에 참여하면서 그에 합당한 이익 또한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한다. 하지만 돌봄 행위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나 요구 사항이 더 중요하기에 평등보다는 ‘차이’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윤리이다. 평등이 불평등이 되고, 불평등이 평등이 되는, 즉 “평등의 개념이 오히려 심각한 부정의를 초래”³⁵⁾할 수 있다는 역설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을 위시한 정의 윤리에서는 평등한 존재들을 전제로 한 공정한 분배를 중시한다. 그러나 돌봄 윤리에서는 불평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지배’로 연결되었을 때에만 문제가 된다.³⁶⁾ 이런 맥락에서 『네 이웃의 식탁』은 일방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유동적인 구성물

33) 구병모, 『네 이웃의 식탁』, 민음사, 2018. 앞으로 이 소설의 직접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하여 면수를 제시한다.

34) 케네스 레이너드·에릭 L. 샌트너·슬라보예 지젝, 『이웃』, 정혁현 역, 도서출판b, 2010, 13면.

35) 이영재, 「돌봄, ‘함께 있음’의 노동」, 『크리티컬』 제1호, 2019, 28면.

36) 에바 F. 키테이, 앞의 책, 33-34면, 참조.

로서의 평등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소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소설에서 전은오-서요진, 신재강-홍단희, 손상낙-조효내, 고여산-강교원 등의 네 쌍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서로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공동 육아를 실천해 보지만, 그런 공동 육아에서의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웃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단화된 공동체는 쉽게 폭력의 도구로 전락한다.”³⁷⁾ 육촌 언니의 약국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서요진은 영화감독 출신인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지만 육아 노동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녀회장 스타일인 홍단희는 원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우월감과 위선으로 왜곡되어 있다. 프리랜서 삽화가로 집에서 일해야 하는 조효내 또한 젊은 세대 특유의 개인주의로 인해 다른 이웃들과 가장 불화한다. 강교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시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SNS상에서의 ‘행복한 주부’라는 허상적 이미지에 투영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28면)의 기준과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웃’의 ‘식탁’은 실제적 차원에서는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

-분명히 짊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에 포인트를 맞추는 만큼 육아를 공동의 책임으로 함께한다는 뜻이니, 아이들을 한군데 모아만 놓고 각자 자기 일을 봐도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를 맡겨서 한시름 놓는 차원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짐을 나눠진다는 차원에서 바라봐 주셔야 해요. 이 부분 모두 동의하시죠?

회의 때 홍단희가 강조한 부분이었다. 배우자가 출근한 동안 혼자서 집에 틀어박혀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으려면 이런저런 탄생각도 나고, 독박을 쓴다는 생각에 우울감도 생기고 아이를 간혹 방치하게도 되어 좋을 일 없으니,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식의 육아를 시험적으로나마 해보자는 뜻이었다. (86-87면)

37) 박해진, 「김수성의 혁명: 구병모, 『네 이웃의 식탁』, 박민정, 『미스 플라이트』」, 『문학과사회』 2018년 겨울호, 231면.

예문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육아를 공동의 책임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지, 아이들을 한군데다 모아만 놓고 각자 자기 일을 봐도 된다”는 것이 공동 육아의 개념은 아니기에 “짐을 나눠진다는 차원”에서의 동의와 실행이 중요하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식의 육아”를 실험해본다는 취지 자체가 단지 개인이나 감정의 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나 현실이 간과되었기에 소설 속 공동 육아는 결국 실패한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 “가족/부부 내부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근원적인 재분배 없이 물리적인 공간 제공을 ‘지원’했기 때문”³⁸⁾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심각한 이유는 네 이웃들의 공동 육아에 대한 셈법 자체가 평등한 이익의 분배를 중시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 육아가 중단되는 결정적 계기는 전은오와 서요진 부부의 딸인 시윌이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126면)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자신의 딸이 돌봄 제공자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불평등한 상황이 막상 발생했을 때 “맞춤과 양보라는 그럴 듯하고 유연한 사회적 합의”(174면)가 얼마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에 불과한지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어떤 효용이나 합리보다는 철저한 당위가 지배하는 장소. 기회가 닿으면 아이들이 탈 만한 그네 또는 미니 미끄럼틀 같은 것이나 좀 들여놓으면 될 터였다. 어차피 아이들이 많아질 곳이므로. 각 집에 아이가 둘씩만 있다고 쳐도 꼽아 보면 스물네 명에 이른다. 별이 좋은 날 각 집에서 버너라도 내놓고 바비큐 파티를 하면 좋겠다는 그림이 여자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스물네 명까지 합치면 도저히 다 둘러앉을 수는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눈앞의 식탁은 이 주택에서 제일 오래 갈 듯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향후 몇 가구가 들고 나든지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서 있을 것만 같은, 이웃 간의 따뜻한 나눔과 건전한 섭생의 결정체처럼. 여자는 웬지 몰라도 이 식탁을 오랫동안 아침저녁으로 보고 지낼 자신이 있었다. (191면)

38) 김건형, 「가족, 사적 돌봄, 국가의 공모 그 이후」, 『실천문학』 2019년 봄호, 146면.

이 소설의 결말은 공동 육아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세 가족은 이사를 갖기에 고여산과 강교원으로 구성된 한 가족만 남은 상황에서 새로 이사 올 예정인 ‘여자’가 이미 떠나간 가족들의 후일담을 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여자’는 첫딸을 낳고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 퇴사까지 하고 입주하는 경우로, 예문에서처럼 공동 육아의 꿈에 부풀어있는 상태이다. 이런 소설의 결말에서 제시되는 식탁은 “어떤 효용이나 합리보다는 철저한 당위가 지배하는 장소”를 대표한다. 식탁 자체가 “제일 오래갈 듯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웃 간의 따뜻한 나눔과 건전한 섭생의 결정체”라는 공동체적 환상을 대변하면서 ‘여자’의 “자신”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웃의 폭력성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윤리의 평등성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현실의 굳건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결말은 공동 육아의 문제를 ‘교차성(intersectionality)’³⁹⁾에 토대를 둔 자기 돌봄의 윤리로 해결해야 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원래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사이의 차별에서 발생하는 성적·인종적·계급적 차별에서 출발한 교차성 개념은 하나의 정체성이나 윤리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각 여성들의 차이성과 고유성을 훼손시키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소설의 의의는 여성들을 완벽한 돌봄 제공자로 그리지 않았다는 점과,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돌봄 윤리의 다양성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작가는 세 식구가 공동주택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던 것이다. 작가는 서요진에 대한 남편 신재강의 부당한 성 추행을 중단하마저 흐지부지 넘어가는 이유, 자신의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조효내가 결국 이혼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유일하게 셋째 아이를 임신해서 공동 주택에 잔류하게 된 강교원이 전업주부로서 열등감을 가

39) ‘교차성’의 여성 윤리적 측면은 다음을 참조했다.

패트리샤 힐 콜린스, 『흑인 페미니즘 사상』, 박미선·주해연 역, 여이연, 2009, 443면.; 린 미켈 브라운·캐롤 길리건, 『교차로에서의 만남』, 김아영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42-47면.; 한우리 외, 『교차성×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18, 44-46면.

지는 이유 등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돌봄 윤리 자체를 충돌과 공백의 교차로에 놓아둠으로써 돌봄 윤리가 과잉될 때에는 오히려 돌봄을 요구하지 않을 자유를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⁴⁰⁾

하지만 이 소설은 앞에서 제기되었던 '효용'이나 '합리', '당위'가 중요하기에 그에 반하는 '나눔'과 '섭생'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자기 돌봄 윤리를 퇴행시키는 위험한 논리임을 열린 결말로 제시하고 있다. 자기 돌봄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자기 돌봄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돌봄 윤리의 이중성을 정의 윤리와의 교차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돌봄 윤리와의 교차성을 통해서 동시에 보완해야 함을 강조한다. 돌봄에 대한 의무가 돌봄 받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처럼, 돌봄 윤리의 폭력성을 자기 돌봄 윤리의 취약성에서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즉 동지이자 적인 이웃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돌봄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가치 있는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돌봄을 위해 자기 경쟁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다른 이웃에게 폭력적인 '괴물'로서의 이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이웃과도 늘 새로운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돌봄 윤리의 차원에서는 이웃에 대해 “속지 않는 자가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다.”⁴¹⁾ 구병모의 소설은 이런 이웃의 윤리가 지닌 위험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제시하는 열린 결말을 통해 돌봄 공동체에서 스스로 찾아야 할 자기 돌봄 윤리의 확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다른 목소리'로서의 자기 돌봄 윤리

40) 구병모는 이미 단편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단 하나의 문장』, 문학동네, 2018)에서 젊은 임신부에게 쏟아지는 마을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윤리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소설화하였고, 『네 이웃의 식탁』은 그 확장판인 장편소설로도 볼 수 있다.

41) 케네스 레이너드·에릭 L. 샌트너·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84면.

자기 돌봄 윤리는 정의 윤리와 돌봄 윤리와 모두 다른 입장에서 차이가 나게 재정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 우선 정의 윤리와 돌봄 윤리는 서로 양자택일적이지 않고 동시성을 지닌다. 즉 돌봄 윤리 자체도 완벽한 윤리가 아니기에 정의 윤리의 입장에서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돌봄 윤리가 더욱 구체적인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 돌봄 윤리는 일반적 윤리의 맹목성이나 폭력성, 과잉까지 견제 가능하다. 돌봄 윤리 내부에서도 긴장과 균열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돌봄 윤리들 사이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 윤리이다. 이런 자기 돌봄 윤리를 통해 자기애나 이기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의 윤리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그리고 일반적 돌봄 윤리의 취약성이나 비대칭성 모두를 보완하면서 생산적 가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기 돌봄 윤리가 모든 남성 중심적 정의 윤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2010년대 여성소설들이 여전히 자기 돌봄 윤리의 현실적 곤궁을 문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자기 돌봄 윤리는 여성들만의 윤리도 아니다. 남성적 정의 윤리와 여성적 돌봄 윤리라는 이분법적 대립 관계에서 파악할 때 발생하는 자기 돌봄 윤리의 한계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통해 ‘여성적’ 윤리가 아닌 ‘여성주의적 윤리’, ‘양자택일적’ 윤리가 아닌 ‘다양한’ 윤리로서의 자기 돌봄 윤리를 재구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기 돌봄의 윤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까봐’ 우려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게 될까봐”⁴²⁾ 걱정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정의 윤리와는 ‘다른’ ‘여성주의적’인 ‘다양한’ 윤리인 것은 분명하다.

김숨의 『여인들과 진화는 적들』은 자기 돌봄 윤리가 여성들에게도 적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왜곡당하거나 모욕당할 수 있는지를 전통적인 모성을 통해 문제 삼는다. 돌봄 제공자가 돌봄 의존자가 되었을 때에도 정당한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인간 모두가 모성적 사유 자

42)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71면.

체의 긍정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의존성' 자체가 자기 돌봄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2장)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는 돌봄 노동 자체가 가족 내에서의 무임금 노동에서 가정 밖에서의 저임금 노동으로 자본화됨으로써 희생이라는 정신적 가치 또한 어떻게 물화(物化)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희생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그러한 부당 거래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피해자이자 당사자로서 여성 스스로 느끼는 민감한 '반응성'에 토대를 둔 자기 서사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3장) 돌봄 윤리를 공동체의 공동 육아를 중심으로 문제 삼고 있는 구병모의 『네 이웃의 식탁』에서는 평등한 육아 부담을 중시할 때 발생하는 불평등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 제약이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자아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남성 혹은 다른 여성들과의 '교차성'을 인정하는 자기 돌봄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교차성은 과잉 돌봄을 자기 돌봄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4장)

김숨 · 김혜진 · 구병모는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라는 양 극단의 장점과 폐해를 모두 경험한 세대로서, 공존·분배·평등 중심의 정의 윤리나 여성 중심의 돌봄 윤리가 지닌 한계를 자기 돌봄의 윤리로 전유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존이라는 허구의 억압성(2장), 희생이라는 정신적 가치의 자본화(3장), 평등의 불평등한 배분(4장)이라는 장애 앞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기 돌봄 윤리가 지닌 의존성(2장) · 반응성(3장) · 교차성(4장)을 각각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자기 돌봄 윤리를 통해 돌봄 의존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과거의 자기를 해체하고(2장), 희생을 부당 거래하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 서사를 통해 저항하며(3장), 자기 돌봄 윤리 내부에서도 발생하는 차별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갱생의 단계까지 나아가려 한다(4장). 이처럼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설 속 자기 돌봄 윤리는 "감정과 사고의 내적 정신세계를 자신과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관계의 열린 공간 속으로 불러내는 통로"⁴³⁾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돌봄 자체의 윤리에서 자기 돌봄의 여성 윤리 층위로 초점을 이동시켜준 이들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첫째는 여성만이 아닌 모든 인간을 돌봄 윤리에 의존해야 할 보편적 타자로 확대 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는 공적 영역으로 이동한 여성주의적 돌봄 윤리를 통해 여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차별과 차이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기 돌봄 윤리 자체가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공존·배분·평등 중심의 정의 윤리와 다르고, ‘자기’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일반적 돌봄 윤리와도 다른 여성 윤리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이다. 이런 의의들을 통해 자기 돌봄 윤리가 지닌 ‘다른 목소리’로서의 여성 윤리가 여성 정체성과 대립되기에 배제되어야 할 부정적 가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긍정적 가치임을 역설하고 있다.

43) 린 미켈 브라운·캐롤 길리건, 앞의 책, 41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구병모, 『네 이웃의 식탁』, 민음사, 2018.
김 숨,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현대문학사, 2013.
김혜진, 『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

2. 논문

- 김건형, 「가족, 사적 돌봄, 국가의 공모 그 이후」, 『실천문학』 2019년 봄호.
김경연, 「노년여성의 귀환과 탈가부장제의 징후들」, 『어문논집』 제82권, 민족어문학회, 2018. 4.
김신현경, 「실은, 어머니에 대하여」, 『딸에 대하여』 (해설), 민음사, 2017.
김은희, 「캐롤 길리건: 정의 윤리를 넘어 돌봄 윤리로」, 연구모임 사회 비판과대안 편,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6.
소영현, 「모욕의 공동체, 고귀한 삶의 불가능성」,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해설), 현대문학사, 2013.
박혜진, 「감수성의 혁명: 구병모, 『네 이웃의 식탁』, 박민정, 『미스 플라이트』」, 『문학과사회』 2018년 겨울호.
박훈하, 「헬조선을 기록하는 법」, 『오늘의 문예비평』 2018년 봄호.
배상미, 「가족과 여성, 그리고 계급서사」, 『문학동네』 2018년 가을호.
백지은, 「자기에 대하여」, 『문학과사회』 2017년 겨울호.
송인화,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과 윤리성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4.
이영재, 「돌봄, ‘함께 있음’의 노동」, 『크릿터』 제1호, 2019.
이현재, 「인간의 자기한계 인식과 여성주의적 인정의 윤리: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적 폭력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7.
정은경, 「2010년대 여성담론과 그 적들: ‘돌봄’의 횡단과 아줌마 페미니즘을 위하여」,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5.
허라금, 「관계적 돌봄의 철학」, 『사회와 철학』 제35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18. 4.

낸시 프레이저, 「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비평』 2017년 봄호.

3. 단행본

공병혜,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수연·한일조·변창진, 『삶과 배려』, 학지사, 2017.

한우리 외, 『교차성×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18.

로즈마리 톱,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역, 한신문화사, 1995.

린 미켈 브라운·캐럴 길리건, 『교차로에서의 만남』, 김아영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버지니아 헬드, 『돌봄: 돌봄 윤리』, 김희강·나상원 역, 박영사, 2017.

사라 러덕, 『모성적 사유』, 이해정 역, 철학과현실사, 2002.

악셀 호네트, 『정의의 타자』, 문성훈 외 역, 나남, 2009.

에바 F. 키테이,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나상원 역, 박영사, 2016.

조안 C. 트론토,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나상원 역, 아포리아, 2014.

트리샤 힐 콜린스, 『흑인 페미니즘 사상』, 박미선·주혜연 역, 여이연, 2009.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역, 동녘, 1997.

—————, 『기쁨의 탄생』, 박상은 역, 빗살무늬, 2004.

—————, 『담대한 목소리』, 김문주 역, 생각정원, 2018.

케네스 레이너드·에릭 L. 샌트너·슬라보예 지젝, 『이웃』, 정혁현 역, 도서출판b, 2010.

<Abstract>

The Ethics of 'Self Care' in the 2010's Feminist Novels

Kim, Mi-Hyun
(Ewha Womans University)

Since the 21st century, a focus of ethics has shifted toward 'the other' from the 'subject'. The reason why was that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subject composing the modern developmental logic led to the dominant voice to criticise the alienation or exclusion of the other. As such, when representing the focal movement from the subject to the other into literature from a profound dimension, an emphasis is put on the ethics of 'care'. The existing ethics centered on the subject was based on 'justice'. On the other hand, the ethics centered on the other is based on 'care'. In particular, in the 2010s 'care crisis' when values including 'empathy·devotion·cooperation' are being threatened, such care ethics is being re-illuminated as the new feminist ethics.

Of course, the care ethics is a controversial concept criticised even from the feminism since the care ethics itself can make females move back to the status of the patriarchal suppression. A solution to overcome these limits of the care ethics may be the ethics of 'self care'. The 'self care' ethics is the very concept which complements one-sided and selfless aspects of loss possessed by the care ethics from mutual and self-preserving aspects of selection.

As for young feminist writers's novels created during 2010s, 『Women and Evolving Enemies』 by Kim Sum, 『About the Daughter』 by Kim Hye-jin and 『Four Neighbor's Dinner Table』 by Gu Byeong-mo create the ethics a narrative in common. The reason why is that they criticise

e suppression and ideality of the existing care ethics and extend it to the feminist ethics positive and active which denies both idealization and derogation of females. Particularly, these novels are significant feminist novels in that they are embodying the ethics of 'self care' in terms of 'dependency-responsiveness-intersectionality'.

* Key Words : Kim Sum, Kim Hye-jin, Gu Byeong-mo, care, self care, feminist ethics.

** 이 논문은 2019년 8월 12일에 투고되어 2019년 8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8월 28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다.